

북상어망 회수작업 어민 소득증대 기여

고성군수협 지난 6~7일 이틀간 실시 ... 어획고 6천50만원 · 어망 회수 6천800만원 소득

동절기 기상악화와 북상조류 등으로 인해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상한 어망을 회수하는 사업이 해양환경 보전 효과와 함께 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수협에 따르면 지난 6~7일 이틀간 을 들어 두 번째로 어로한계선 이북 북상어망 회수작업을 실시한 결과 총 6천 57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어망 680닥을 회수해 6천800만원의 소득도 추가로 가져왔다.

닥은 자망의 길이를 잘 때 쓰는 단위로 한 닥은 50~150미터에 해당하며, 여러 개의 닥이 합쳐서 한 틀을 이룬다. 수협은 어망 1닥의 가격을 10만원으로

환산했다.

6일 실시한 작업에는 어선 14척이 참여해 대게 1천240만원을 비롯해 홍게 660만원, 잡어 120만원 등 2천2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또 어망 290닥을 회수해 2천900만원의 소득을 가져왔다.

7일 실시한 작업에는 어선 16척이 참여해 대게 4천200만원, 잡어 350만원 등 4천55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또 어망 390닥을 회수해 3천900만원의 소득을 가져왔다.

이번 북상어망 회수작업에는 어선들의 안전을 위해 고성군수협 지도선 1척과 속초해경 경비함정 등 4척, 해군 1함대 군함 2



어로한계선 너머로 북상한 어망을 회수하는 사업이 해양환경 보전 효과와 함께 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월 1차 작업 모습.

척이 동원됐다. 한편 지난 1월 21~22일 이틀간 실시된 올해 1차 북상어망 회

수작업에서는 대게와 잡어 등 총 5천700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어망 1,140닥을 회수해 1

억1천40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가져왔다.

최광호 기자

바다환경 오염방제 지속전개 다짐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고성지부 창립 9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고성지부(지부장 김두복)는 지난 10일 오전 고성군 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바다살리기 활동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바다환경 오염 방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김두복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16회 바다의 날 행사가 고성 화진포의 천혜의 자연과 청정해역에서 열린다”며 “고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또 “모든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다환경을 사랑하는 것을 생활화함으로써 고성의 아름다운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바다환경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고성지부가 지난 10일 창립 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갖고 바다가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사단법인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고성지부는 지난해 해양오염 유출에 대한 예방 방제와 신속한 초동 대처 활동 및 훈련과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강원도 지진 해일 대응 합동훈련에 참가해 응급 초동 방제 조치 훈련을 실시했으며, 속초해경 경비함정과 합동 방제 훈련을 실시했다.

2009년에는 속초경찰서에서 민간 자율방제대를 전국 최초로

등록했으며, 2010년 속초해양경찰서 및 거진 자율방제대와 민간 자율방제 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음은 표창장 수상자 명단이다.

- ◆강원도지사 표창장 △김정부 △이승식 ◆강원도의회의장 표창장 △최성도 △이용수 ◆바다살리기 총재 표창장 △양승언 △최원창 ◆고성군수 표창장 △김원식 △김동하 ◆속초해양경찰서장 표창장 △이태홍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장 표창장 △장철수

박승근 기자

고성군수협 과장급 인사

고성군수협(조합장 최영희)은 지난 7일자로 이순표 대진지점장을 상호금융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과장급 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순표 대

진지점장이 상호금융과장으로, 최창범 아야진지점장이 대진지점장으로, 김정용 상호금융과장이 아야진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광호 기자

‘음식과 사랑’ 봉사단 출범

음식업 고성군지부 정기총회 개최

한국음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지부장 김창길)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금강농협 3층 연회장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중요사업 실적보고, 표창장 및 장학금 수여, ‘음식과 사랑’ 봉사단 출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출범한 ‘음식과 사랑’ 봉사단은 관내 요양원 및 노인회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나눔과 섬김의 봉사활동을 전

개하게 된다.

또 음식봉사 활동 외에도 자원봉사 릴레이에 동참해 현행 봉사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창길 지부장은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동참해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음식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 10일 한국음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제46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